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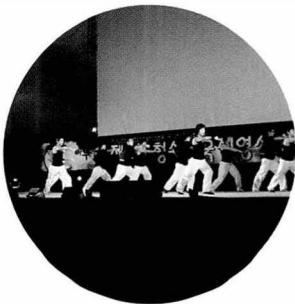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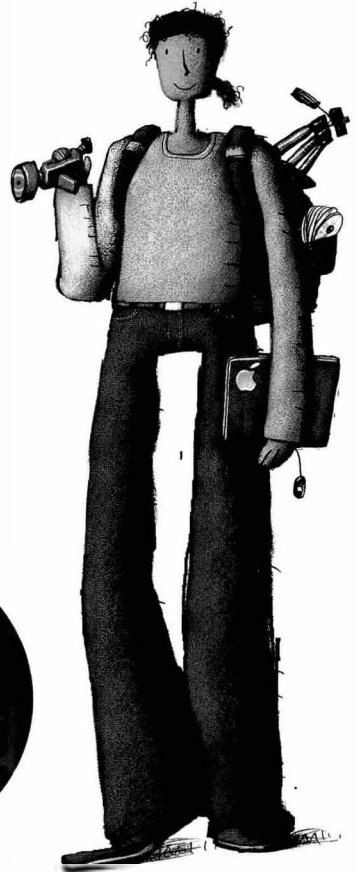
www.yiffa.org

필연

에이즈 = 당뇨

지난 8월 18일-19일 이틀간 한강시민공원 청소년광장에서는 새로운 영화제가 열렸다. 야외극장을 개설해 영화제를 찾는 시민 누구나 영화를 관람하고 부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이 영화제는 바로 <제 2 회 청소년 국제 영상 페스티벌 -아우라>. 기존의 청소년 관련 영화제 및 각종 영상 페스티벌과 차별화 된 '열린 교육과 참여'를 통한 깨달음 /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성교육과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타파에 대한 교육, 영상문화체험의 기회제공' 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축제여서 더욱 돋보였다.

글 김신혜 독립영화 감독·드라마작가



영화제 참여대상으로는 영상 제작 경험이 없지만 자발적 참여 의지를 가진 13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들과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범죄를 저질러 법의 제재를 받고 있는 등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을 우선으로 참여 유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객은 청소년 및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들을 우선 권장하지만 관심을 갖고 찾는 이라면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각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성(性)과 에이즈에 대한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선택해 제작한 작품들은 프로의 작품처럼 매끄럽고 수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솔하고 제법 깊이 있는 접근이 매력적이었고 의미가 더 크게 다가왔다.

9개국에서 참여한 청소년 감독들의 신선하고 발랄하며 아름답고 진지하며 유쾌한 생각과 상상이 담긴 38편의 작품들은 어름방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는데, 우수 작품상을 수

상한 "에이즈=당뇨"는 작품은 고등학교 2학년인 여고생 신정문 학생이 연출한 작품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주인공이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더더욱 건강한 생각과 건강해지고자 하는 노력, 영화감독이 되고 싶은 꿈을 이루고자 하는 절실한 소망으로 치료를 통해 에이즈를 극복해가는 과정과 생각을 담은 영화다.

에이즈에 감염되어도 치료를 잘하면 당뇨나 고혈압처럼 극복하고 오랫동안 희망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정보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도 쉽게 전염될 거라는 오해를 풀어주는 작품이었다. 10분이 채 안 되는 고교2년 여학생의 작품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고, 어떤 교육 자료보다 효과적이고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그 외에도 청소년들의 재기발랄한 상상력과 재능, 무계감 있게 다가오는 메시지들을 작품으로 잘 소화시킨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품들이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진지한 태도로 관람을 하게 되었다.

적절한 청소년 성교육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에이즈에 관한 정보 전달 등과 관련한 지도가 절실한 것이 현실이지만,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좀 더 능동적이고 근본적인 교육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청소년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닐까. <청소년국제영상페스티벌-아우라>는 그런 사회적인 필요성에 제대로 부합하는 청소년 문화 축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작년에 이어 2007년 두 번째 발자국을 성큼 내디딘 이 신선하고 탄탄한 영화제는 앞으로의 비전까지도 참으로 당차다. 향후 영화제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 보다 문화적 상황이나 수준이 뒤쳐져 있는 해외 각국의 청소년들을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청소년들



의 영상 작품을 통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고, 사전제작 워크숍을 통한 성교육, 에이즈 예방 및 퇴치에 대한 교육, 영상교육 등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워크숍 참여를 유도해 편견과 차별이 없이 자연스럽게 에이즈와 '성' 에 다가가는 자발적인 참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국제영화제로 성장해 가고자 하는 <청소년국제영상페스티벌-아우라>의 비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소가족화로 가족 개개인

의 영역이 분리되고 심리적 교류와 대화가 단절되는 가족해체의 사회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축제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 역시 <청소년국제영상페스티벌-아우라>의 목표이고 비전이라고 하니 이 멋진 청소년문화축제 한마당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 무한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길 기대한다.

내년에도 여름 한강시민공원에서 3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다렸다 가족들과 손잡고 찾아가 봐야겠다. 누구에게 권해도 좋을 랜참은 문화축제 하나가 탄생했다.



오직 당신을 위해

과여석이 이국에서 현성현인 레슨 생활까지
에보트기 당신의 건강한 내일은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에보트기 지켜갑니다.

